



선교사: 강경찬, 김민경

선교지역: Vale do Gavião, Teresina, Piauí, Brasil

1. 2025년 사역보고

-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2025년 한 해는 이사야 41:10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굳게 서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배 주일 아침 교회학교에서는 장년들과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작년에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계속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이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굳게 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성도는 **저녁예배**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깊이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예배



저녁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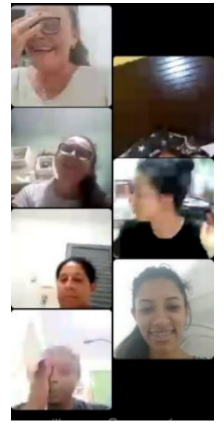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예배에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강해를 이어갔습니다. 이 강해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의 핵심 진리와 교회의 생활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성도 모임 남성도들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2025년)는 각 성도의 직장 근무 시간과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할 기회가 줄어든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비록 모임은 불규칙했지만, 남성도들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다음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재정적·영적 부담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간구했습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멋진 가장'으로 바로 서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의 아빠나 남편이 아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신앙을 지켜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성도 모임 매주 금요일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여 지속적인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함께 기도하며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한 달의 마무리를 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와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 됨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을 기도로 살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사역**을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버림받은 청소년들이 있어 성도들이 함께 살핍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집을 돕기 위해 학업과 일하는 아이들이 안스러워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기도회를 넘어, 성도 간의 연합과 섬김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여성 금요ZOOM 모임

토요 예배 청년과 청소년 공동체인 '엔콘트로(Encontro)'는 올 해 젊은 세대가 성장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것 외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그 가정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초대하고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자연스럽게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젊은 세대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토요 청년,청소년 모임

전도 -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발리두 가비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거리 곳곳을 다니며 지역 주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소개하며 새로운 이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데 힘썼습니다.



교회 앞 노방전도

심방 - 각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심방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필요에 깊이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성도들의 현재 상황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개인적인 위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방예배와 친교, 전도

특별행사와 교제 여러가지 행사로 성도들이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과를 준비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과 함께 성도의 교제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브라질 독립기념일(9월 7일)이 있는 9월 첫째 주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귀한 도전이 되었으며,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며 따뜻한 축복을 전하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지역의 아이들을 교회로 직접 초대하여 풍성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함께 온 부모님들에게 교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임을 알리는 전도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거리가 있어 접근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역, 윗 마을의 공터에서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

량과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지역에 심는날이었습니다.

문화사역



문화 사역 중 하나로, 7주간 준비한 성도들의 음악 발표회(피아노, 기타연주)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올해 진행된 카렌 자매님의 전문적인 보컬 수업은 교회 찬양팀 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열린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성 지식과 실습을 통해 찬양 예배 싱어 섬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역에도 재능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장학사역

-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현재 총 5명의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컴퓨터 교육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업을 지원하며 응원해왔으며, 특히 기쁜 소식은 이들 중 2명이 대학 합격과 더불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교회 보수공사 – 오랜 기다림 끝에 교회 앞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주방이 없어 식사나 간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 불편하였었는데, 기도와 후원해주신 덕분에 작은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식사와 간식 준비가 훨씬 수월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드렸던 태양광 패널 설치 준비는 계속되고 있으나, 예산이 크게 인상되어 현재 여러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해결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9:00
- 주일 저녁예배 18:00
- 수요일예배 19:00
- 성찬식: 매달 마지막 주일
- 여성도모임: 매주 금요일 zoom 으로 18:30; 마지막 금요일은 교회에서 18:00
- 토요일청소년모임 (엔콘트로, Encontro) 매주 토요일 18:30 교회에서
- 심방과 전도
- 장학금지원:
 - (1) Gabriely Cauane; (2) Rebeca Rocha; (3) Nivea Thais; (4) Wagner Ismael; (5) Victor Hugo
- 2025 년 1 월-11 월 사역보고

1 월	신년예배, 예배 후 만찬 새해 첫 엔콘트로
2 월	교회 주방 공사 (1-21/02) 교회 생일 (3 번째 주일) 청소년 모임과 전도
3 월	교인 병원 방문 여성의 날 행사 고난주간
4 월	여름성경학교 준비 심방 교인 시골마을 방문 (1 일 수련회, 전도 17-18 일) 고난주간 부활절 (20/04)
5 월	전도 (03/05) 가족의 달 말씀 - 시편 62:1-8 “가정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 디모데후서 1:5 “성경 속 어머니들, 오늘의 어머니들” (어머니 날) - 빌립보서 2:14-16 “소망을 증거하는 가정들” 어머니 날 행사
6 월	심방 부부의 밤 – 브라질 valentine’s day 브라질리아 설교
7 월	장로교 청소년의 날 (27/07)
8 월	심방 브라질 장로교 166 주년
9 월	브라질 독립 기념 – 브라질을 위한 특별 기도회 (8-12/09)
10 월	어린이날 행사 (11-12/10)

	스승의 날 심방 종교개혁
11 월	전도 추수 감사절 예배와 입교식, 만찬

2026 사역계획

- 빌립보서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2026 년는 빌립보서 4 장 8 절의 말씀을 붙들고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 주일 아침 (어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주일 아침 (이이들): 하나님 - 소그룹 성경공부 - 금요 기도 모임 - 토요 예배 (청소년, 여성도, 남성도) b) 구제 - 지역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 c) 교회 solar painel 계획 d) 카니발 수련회 e) 장학사역 - 2026년에도 5명 지원 f) 문화사역 - 기타, 보컬, 영어, 한국어 수업예정

사역활동: 2025년 11월 - 2026년 11월 사역 계획 2025 12월: 성탄절 예배 2026 말씀 – 빌립보서 4:8 2026 1월: 신년 예배와 만찬 2월 1) 청소년 모임/전도 2) 교회 생일 3) 수련회 (카니발 기간) 3월 1) International Women's Day 예배 2) 남성도 성경공부
--

4월

- 1) 고난주간
- 2) 부활절 예배

5월

- 1) 가족의 달 예배
- 2) 어머니의 날 예배

6월: 부부의 날 (브라질 valentine's day)

7월: 여름성경학교

8월: 브라질 장로교 선교의 달

9월

- 1) Independence day 예배 (첫번째 주, 브라질을 위한 특별기도회)
- 2) 성탄절 준비

10월: 어린이 날 예배와 특별 활동

11월: 추수감사절 예배

구제와 장학: 장학금 지원

- 1) Gabriely Cauane
- 2) Rebeca Rocha
- 3) Nivea Thais
- 4) Wagner Ismael
- 5) Victor Hugo

문화사역: 기타, 보컬수업, 영어수업, 한국어수업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역 기도제목

1. 빌립보서 4 장 8 절을 의지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고, 삶의 전 영역에서 경건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2.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지역 사회에 드러내고, 문화 및 장학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청년과 청소년들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을 붙들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 리더로 성장하도록.
4. 어린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재정, 인력 등)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도록
복음을 듣게 될 아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에도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사역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기꺼이 섬기며 헌신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 기도제목

1.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2.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적 확신과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가정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3. 예준, 예인, 예찬이가 선교사 부모의 소명을 기쁨으로 이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5. 양가 부모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위해
(특히 한국에 계신 친정 아버님의 희귀 혈액암 치료 과정에 있어 믿음 안에서 지지하지 않도록.)

Deus o abençoar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땅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세밀하게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소망 가득한

성탄절과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찬, 김민경, 예준, 예인, 예찬 올림

Feliz Natal e Ano Novo